

한국 통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한 현 희
(경희대)

1. 서론

1960년대 통역학이 번역학과 더불어 통번역학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학문으로 태동하여 형성, 발전을 거듭한 지 반세기가 흘렀다.¹⁾ 타학문에 비해 상대적

* 본 연구는 2016년 4월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통번역학의 출발점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이항(2013: 72)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1972년 홈즈(Holmes)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응용언어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한다. 당시 논문에서 홈즈가 최초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이를 새로운 학문 공간으로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보다 앞선 1957년 최초의 통역학 박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고, 이에 힘입어 1960년대 컷포드(Catford)와 니다(Nida) 이후 통역학을 포괄하는 번역학이 현대적 본격 학문 분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정호정 2013)을 근거로 삼아 1960년대를 통번역학의 시작점으로 보기로 한다.

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통번역학이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음은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해외의 경우 독일어, 불어,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행되는 통번역 관련 간행물이 60여종에 이르고, 국내에도 전문 학술지가 6종에 이른다.²⁾

이와 같은 통번역 연구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오늘날 학계에서는 양적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논의가 활발하다. 그간 이루어진 통번역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거나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 혹은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가정, 편견을 비롯하여 타 학문에서 빌어온 근거, 믿음, 주장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볼 시기가 되었다”(제 4차 유럽 번역총회; 김훈밀 2014: 9 재인용)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항(2013) 또한 번역학의 메타담론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한다. 번역학의 양적 팽창에만 안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가 대거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 즉 인접학문의 방법들을 제대로 ‘차용’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했는가? 다시 말해 타학문의 방법을 옳게 사용하고 그 효용을 제대로 평가해왔는가?”에 관한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제를 통해 본 통번역학 연구 흐름 분석(Doorslaer 2005), *Meta*와 같은 특정 학술지의 통역 연구 동향 분석(Lim 2009) 또는 *Meta*에 게재된 통번역 교육이라는 특정 영역의 연구 성과 양적 분석(Pan. et al. 2015) 등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연구 성과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번역학의 패러다임 분석(Garbovskiy et al. 2012), 아시아와 유럽 학술지 간의 번역학 연구 동향 비교(Rafice et al. 2014), 대만과 국제 학술지 번역 연구 동향 및 방법론 비교 연구(Lan et al. 2009)가 그 예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200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통번역학 연구 동향(김정우 2005; 최희섭 2007; 이항 2011; 김혜림 2013; 정호정 2013; 원종화 2015)을 분석하여 한국 통번역학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 해외의 전문 학술지는 *Babel*, *Interpreter's Newsletter*, *Interpreting*, *Meta*, *Perspectives*, *Targe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The Translat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Translation and Literature* 등이 있으며, 국내 학술지로는 『번역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통번역 교육연구』, 『통역과 번역』, *T&I Reveiw*, *Forum*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를 막론하고 통역보다는 번역 연구가 활발하듯³⁾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 또한 통역학보다는 번역학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혜림(2013)과 원종화(2015)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번역학 연구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윌리엄과 체스터먼(Williams & Chesterman, 2006)의 번역학 분류를 따른 이항(2011)의 경우 통역학 연구를 아우르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가 지적했듯 11개의 연구 영역으로 세부 분류한 번역학과 달리 통역은 하나의 범주로만 분류되어 사실상 통역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번역학과 통역학을 균형적으로 분석한 김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주제별 통역 연구의 분포와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나 결과 제시에서 통번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통역학만의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다. 원종화(2015)의 연구에서는 뢰히하커(Pöchhacker)의 통역 연구 패러다임 분류법을 기반으로 국내 통역학의 연구 흐름을 잘 정리하였으나 세부적인 주제 영역에 대한 양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국내 통역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에는 모두 수어⁴⁾통역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수어 통역 전문 학술지가 국내에 부재할뿐더러 국내 통번역 관련 학술지에 수어 통역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지만, 수어 통역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국내 통역학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수어 통역의 연구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국내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체 통역학 지도에서 한국 통역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⁵⁾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와 해외 통역학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통역학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통역학 발전을 위한 과제를 고

-
- 3) 김혜림(2013)은 『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학술지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통번역학에서 통역 연구가 번역 연구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4) ‘수화’가 아닌 ‘수어’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손짓 언어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문법 체계와 표현 방식을 갖춘 하나의 ‘언어’라는 관점을 피력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본고에서도 ‘수어’의 언어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수화’라는 용어를 지양하지만, 고유명사의 경우 ‘수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5) 정호정(2013)이 국내외 학술지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통역을 제외한 번역학 연구에 한정하고 있다.

찰하여 향후 통역학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⁶⁾

이를 위해 6종의 국내외 대표적인 통번역 전문 학술지에 실린 통역 관련 논문을 코퍼스로 삼는다. 코퍼스 선정 기준의 원칙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통역학 연구의 대표성과 연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외의 경우 A&HCI급 저널, 국내의 경우 KCI 등재지로 선정된 저널로 한정한다. 둘째, 저널 명칭에 ‘통역’이 들어가 있을 경우 다른 저널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셋째, ‘교육’과 같이 특정 분야가 저널명에 표기 될 경우 코퍼스에서 제외한다.⁷⁾ 해외의 경우 ‘통역’이 명시되지 않은 A&HCI급 저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그 명성을 유지해온 학술지는 *Meta*와 *Babel*이다. 그러나 *Babel*이 주로 번역 연맹(federation of Translation)을 위해 발간되어 번역학 연구에 초점을 맞춰온데 반해, *Meta*는 A&HCI에 최초로 등재된 학술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유일하게 통번역을 모두 아우른 학술지로 자리매김해왔다(Lim 2009: 184-85; 정호정 2013: 28). 그리하여 ‘통역’이 저널명에 명시된 *Interpreting*(영국 John Benjamins 출판사)과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John Benjamins 출판사, 이하 *T&I Studies*로 표기), 그리고 *Meta*(캐나다 Montréal 대학 출판사) 3개지를, 국내의 경우 『번역학연구』(한국번역학회), 『통역과 번역』(한국통역번역학회), 『통번역학연구』(한국외대통번역연구소)를 분석대상 저널로 선정한다. 한편 본고의 분석대상지인 *Meta*는 1956년부터 발간될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깊다. 그 외 *Interpreting*의 경우 1996년부터 발간, 국내 최초의 통번역 전문 학술지인 『통번역학연구』는 1997년에 발간되었다. 이에 국내외 비교 가능한 시기인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최근 2015년까지의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리하

- 6) 물론 국가와 문화권 마다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이 있으므로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통역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아를 더욱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분석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가 해외 연구 동향을 무비판적으로 지향하기 보다는 국내 통역학 연구의 취약점을 파악하되, 강점은 부각하여 해외 연구자들과의 보다 폭넓은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7) 원종화(2015) 또한 통역 연구 패러다임 분석에 있어 ‘교육’과 같이 특정 주제의 논문을 다룰 수 있는 학술지보다는 통번역학 논문이 전반적으로 실리는 학술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겨 KCI 등재지 가운데 『통번역 교육연구』를 배제한 바 있다.

여 최종적으로 해외 학술지에서 추출한 274편, 국내 학술지에서 추출한 298편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등록된 수어 통역 관련 연구 28편⁸⁾, 총 600편의 논문을 비교분석한다.

국내외 전문학술지 분석을 통해 번역 연구 동향을 밝힌 정호정(2013: 28)은 학술지가 해당 학계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만큼, 실제 게재된 논문 분석은 연구 동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투리(Toury 2009: 1; 정호정 2013: 10 재인용) 또한 전문학술지가 그 활동상을 담아내기만 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분야와 주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보다 추상적 차원에서 학자들이 포용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선도하는 방식으로 해당 학문분야의 변화를 일구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메타 분석의 성격을 띠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2. 통역학 연구의 분류 틀 및 분류 작업

전체 통역학 연구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통역학의 연구 영역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통역학 연구의 전체 구도를 파악할 분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류 틀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8) 수어 통역 연구가 게재되어 있는 학술지 대부분은 KCI 등재지이지만, 일부는 등재후 보지이거나 비등재지인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수어 통역 연구가 구어 통역 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인만큼, 코퍼스 선정 기준에서 수어 통역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분석 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논문 전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선행 연구의 통번역학 분류 틀

Holmes' map (1972/2000)	Williams & Chesterman, 2006	쉬진, 2009	Pöchhacker, 2004
김정우(2006)-통역 제외 최희섭(2007) 순수번역학 ---- 이론 번역학 >번역 이론 -번역일반이론 -번역분류이론 >번역 사례연구 -성서번역 -문학번역 -대중매체 ---- 기술번역학 -결과중심 -과정중심 응용번역학 ---- 번역교육 ---- 번역평가 ---- 번역기법 ---- 보조수단 일반번역 통역연구 기타	이향 (2011) - 텍스트 분석과 번역 - 번역 품질 평가 - 장르별 번역 - 멀티미디어 번역 - 번역과 테크놀로지 - 번역의 역사 - 번역 윤리 - 출어 및 용어론 - 통역 - 번역 과정 - 번역 교육 - 번역 직업론 - 기타	김혜림 (2011) 연구 영역 - 텍스트 분석과 통역 - 통역 품질 평가 - 통역과 테크놀로지 -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통역 - 통역의 역사 - 통역 윤리 - 출어 및 용어론 - 통역 과정 - 통역 교육 - 통역 직업론 - 기타 독립 변수 > 유형별 회의, 통시, 순차, 커뮤니티 등 > 연구방법론 사례분석, 문헌연구, 고찰연구, 기술연구, 실험연구	원종화 (2015) 8개 패러다임으로 분류 - IT (메시지론) - CP (인지정보처리) - NL (신경언어학적) - TT (텍스트 언어학적) - DI (양방향단위) - ED (교육) - SP (전문직업-제도화) - PP (철학, 관념적)

첫 번째는 번역학 전체 구도 파악을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홈즈(1972/2000; Toury 1995: 10; Munday 2001: 10)의 도해(map)를 활용한 분류 틀이며, 김정우(2006)와 최희섭(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번역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 김정우(2006)의 연구에서는 통역 관련 연구가 제외되었고, 최희섭(2006)의 연구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통역 연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 통역학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윌리엄과 체스터만(2006)의 분류 체계를 활용한 이향(2011)의 연구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역 연구가 ‘통역’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동시에 ‘텍스트 분석과 번역’, ‘번역 품질 평가’, ‘장르별 번역’, ‘멀티미디어 번역’ 등이 같은 층위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 또한 하나의 번역 ‘장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둘 다 매체적 성질을 갖는 만큼 그 안에서 품질 평가와 텍스트 분석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9)

세 번째 쉬진 외(許鈞 et al. 2009)의 분류 기준을 소개한 김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 틀을 기반으로 연구 주제 분류를 보다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통역과 번역의 범주를 따로 분류하고, 언어, 장르, 연구 방법론 등을 독립변수로 두어 분류의 체계성을 더욱 정교화했다. 그러나 이향(2011)이 우려한 바와 같이 홈즈의 도해에서 ‘순수 이론’의 범주로 분류될 만한 이론 관련 연

9) 김혜림(2013) 또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특정 장르’와 연구 주제 분류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들이 ‘기타’ 카테고리 분류되면서 역설적으로 학문의 큰 물줄기, 즉 학제로서의 필수 조건인 순수 이론의 영역이 지나치게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공백으로 남게 되어 경험연구 외의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들이 설 자리가 없거나 그 성과들의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네 번째, 피히하커의 분류 틀을 활용한 원종화(2015)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이론 연구로 분류될 만한 패러다임으로는 철학적-관념적 패러다임(philosophical-speculative paradigm)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정의를 살펴보면 “철학, 미학, 기호학 등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인근 학문의 이론들을 통역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원종화 2015: 42)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실제 통역학의 순수 이론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이 아님을 의미하며, 결국 이론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해석이론, 인지정보 패러다임, 신경언어학적 패러다임 등 각 연구 주제별로 분류되었고, 이는 결국 분류된 논문들의 성격이 개념적, 이론적 연구인지 아니면 경험적 연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존 분류 틀의 한계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의 통역학 연구의 흐름을 조망하고자 한다.

2.1 통역학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 틀

본 연구에서 마련한 기준 체계의 일차적 목적은 학제로서의 통역학 연구의 성격, 즉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언어 유형, 통역 유형, 장르 유형은 물론 세부 주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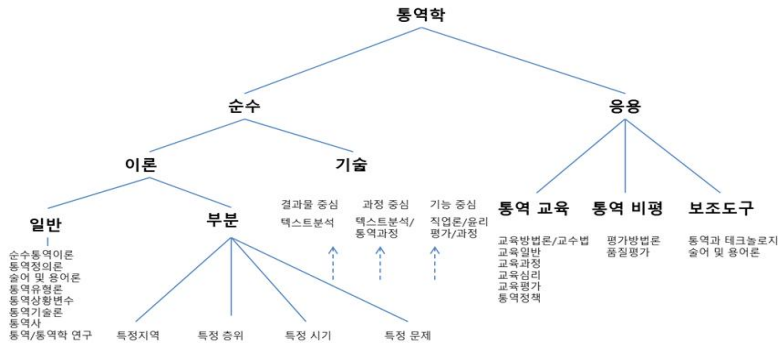
이에 홈즈의 기본 도해를 바탕으로 하되, 홈즈의 도해가 통역을 일차적 관심사로 삼지 않은 만큼¹⁰⁾ 잘레프스키(Salevsky 1993)의 분류를 기반으로 피히하커가 제안한 통역 환경과 언어양식, 통역모드 등의 지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피히하커 2004; 이연향 외 2009: 28-42 재인용).¹¹⁾ 그리하여 독립

10) 홈즈가 통역을 일차적 관심사로 삼지 않은 만큼 홈즈의 지도에서 통역은 ‘매체 제한적인(medium-restricted)’ 이론적 영역에서 문어가 아닌 구어로 이루어지는, 기계가 아닌 인간에 의한 번역으로 분류되어 있다(피히하커; 2004; 이연향 외 2009: 42 재인용).

11) 통번역학 지도 상에 통역의 위치를 조금 더 부각시킬 목적으로 ‘통역학의 학제를 위

변수로서 통역 수행 주체, 즉 통역 매체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고, 장르(작업 환경)별로 회의통역인지 혹은 교육, 법정, 보건/사회, 미디어 등의 커뮤니티 통역인지를 구분, 모드 상으로 동시 통역, 릴레이 동시, 위스퍼링, 시통역(sight translation) 등을 구분하며, 언어 유형별로 구어인지 수어인지 여부를 분류하게 된다. 한편 특정 연구 영역과 하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세부 연구 주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홈즈의 도해에 맞게 새로이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¹²⁾

그림 2 통역학 연구 도해



우선 순수 영역의 이론은 일반 이론(general theory)과 부분 이론(partical theory)으로 분류된다. 순수 일반 이론은 모든 종류의 통역에 대해 기술하거나 설명하고, 통역 전반과 관련된 일반론을 제시하고자 고안된 이론을 의미한다.

한 가지형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지도는 통역의 모드(순차 대 동시), 매체(인간, 기계, 컴퓨터 지원 통역), 언어 조합, 문화 조합, 장소/기관(법정, 미디어 등), 텍스트 관계(텍스트유형, 전문성의 정도 등), 파트너 관계(출발 텍스트 산출자 대 도착 텍스트 수용자) 등과 같은 상황 변수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Salevsky 1993: 154; 궤히하커 2004; 이연향 외 2009: 42 재인용).

12) 각 영역별 기본적인 개념과 설명은 투리 도해에 관한 먼데이의 해설에 기반한다 (Munday 2000; 정연일 외 2006: 10-15 재인용). 다만 통역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 만큼 편의상 ‘번역학’이 아니라 ‘통역학’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설명하되, 이것이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바는 아님을 밝혀둔다.

통역학 이론을 개괄한 정혜연(2008)의 분류를 기준삼아 순수 일반 이론의 하위 주제 영역으로 순수 통역이론, 통역 정의론, 술어 및 용어론, 통역 유형론, 통역 상황 변수, 통역 기술론, 통역사, 통역/통역학 연구를 설정한다. 순수 통역이론 영역은 과리학과의 의미통번역론이나 기능주의 학파의 일반 통번역론과 같이 통역 현상 전반을 다루며 독립 학문으로서 통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 혹은 노력 모델이나 예측 이론과 같이 통역의 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이론들을 상세하게 소개, 기술하거나 주관적으로 상술하는 연구들을 일컫는다. 통역 정의론 영역에서는 학제로서 통역학의 연구 대상인 통역을 정의하는 다양한 철학적, 개념적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술어 및 용어론 영역에서는 통역학에서 통용되는 술어 또는 용어의 개념 설명이나 통일 등과 같은 언어 정책들이 다뤄지며, 통역 유형론 영역에서는 통역 방식, 전문성, 언어 유형, 언어 조합, 텍스트 유형 등 통역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구분이 제시된다. 통역 상황 변수 영역은 발화속도, 청성 시차, 발화 단위 등 통역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통역 기술론 영역은 통역기술 연마를 위한 다양한 연습이나 노트테이킹, 통역 사전 준비 기술, 추론 기술 등 효과적인 통역 과제 수행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통역기술 문제를 다룬다. 통역사 영역에서는 통역사와 번역사의 차이, 집중력, 스트레스, 긴장, 적성, 자질 등 통역사에 대한 연구를 다루며, 통역/통역학 연구 영역은 총론과 같이 통역학 성립과 발전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포함되며, 이상의 모든 순수 일반 영역의 연구들은 주로 고찰이나 문헌연구의 성격을 띤다.

순수 부분 이론은 특정 지역, 특정 층위, 특정 시기, 특정 문제 이론으로 분류된다.¹³⁾ 특정 지역 이론(area-restricted theories)은 특정 언어들 또는 언어/문화의 집단으로 연구 영역이 제한된 연구 분야이며, 대조 언어학과 문체론 연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각국의 언어정책 개괄 및 비교, 특정 언어조합의 언어 비교와 같은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통역 연구, 다수자 언어집단과 소수자 언어집단 사이의 관계와 같은 통역 역사 주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정 층위 이론(rank-restricted theories)은 텍스트-층위 분석(text-rank analysis)과 같은 텍스트

13) 홈즈의 도해에서는 특정 매체 이론과 특정 텍스트 타입 이론이 포함되지만, 이들은 본고에서 각각 독립 변수로 설정한 통역 매체와 장르(작업환경)로 대체된다.

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며, 통역의 단어 또는 문장의 특정 층위로 그 연구 영역을 제한하는 언어학 이론이다. 통역의 의미단위 연구, 어휘 밀도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정 시기 이론(time-restricted theories)은 통역의 특정 시간대(시대) 또는 기간으로 연구 영역을 제한한 이론과 통역물을 일컫는다. 특정 시대, 특정 통역인의 연구, 통역사 배경 및 활동상,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개별 통역 연구, 특정 시기, 특정 문화에서 어떤 텍스트가 통역되었는가, 특정 시대의 통역 발전상 등 통역 역사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순수 이론의 또 다른 분과인 기술론적 통역학(DIS: descriptive Interpreting studies)은 결과물 중심(product-oriented DIS), 기능 중심(function-oriented DIS), 과정 중심(process-oriented DIS)으로 나뉜다. 결과물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은 텍스트 분석과 통역을 주로 다룬다. 원문과 통역문(들)을 기반으로 비교/대조 분석한 연구, 통역문과 비통역문의 특성 비교, 구체적 통역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와 같은 통역사가 사용한 통역 전략 연구, 원문과 통역문의 변이(shifts) 양상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능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은 텍스트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통역을 다룬다. 수용 언어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통역물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 혹은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평가하는 통역 평가 연구, 통역 환경과 관련하여 통역의 실제 작업 및 작업장 연구, 더 나아가 통역사와 통역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통역 과정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밖에 통역을 통해 바라본 권력 담론 연구, 젠더, 탈식민주의, 네셔널리즘, 권력과 해방, 이데올로기, 충실성, 소수자 아이덴티티, 문화적 아이덴티티, 통역사의 (비)가시성, 실무 윤리 규정과 같은 통역 윤리 연구와 더불어 통역사의 책임 한계와 역할, 통역사의 사회적 지위, 특정 장르의 통역 현황과 개선 방안과 같은 통역 직업론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정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은 (인지)심리학과 밀접히 연관된다. 통역 수행 시 통역사의 뇌 활동, 인지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같은 과학적 접근을 비롯하여 통역 과정에 대한 회고적, 내성적 분석 연구, 사고 발화법, 통역사 인터뷰 등 통역 과정 전반에 관해 해설하는 통역 과정 연구, 뿐만 아니라 노트테이킹이나 언어 방향성 등과 통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성격의 텍스트 분석과 통역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통역학의 큰 갈래인 응용 분야는 크게 통역 교육과 통역 비평, 통역 보조

도구로 나뉜다. 통역 교육 영역은 말 그대로 통역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교육방법론/교수법을 비롯하여 교육 현황을 개괄하는 교육 일반 연구, 교과목 분석 및 설계 등의 교육과정 연구, 학습자 심리를 다루 교육 심리 연구, 교육 평가 연구 등의 세분화된 주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외국어 교과 과정에서 통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하는지와 같은 통역 정책 또한 세부 주제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통역 비평은 평가 방법론과 품질 평가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된다. 통역물에 대한 품질 평가, 원문과 통역문을 대조 분석하여 통역문이 원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분석하는 오류 연구의 텍스트 분석과 통역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보조 도구 영역에는 통역 장비를 비롯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기반으로 하는 통역과 테크놀로지 분야, 술어 및 전문용어, 사전 구축 및 특정 언어에 대한 문헌 작업, 코퍼스 작업 연구, 술어 관리 프로그램 등의 술어 및 용어론의 주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분류는 통역학 연구의 큰 흐름은 물론 세부적인 담론을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번역학 연구 동향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윌리엄스와 체스터만(2006)의 분류 상으로 원문과 번역문 비교 연구와 번역 과정을 해설하거나 번역 과정에 대한 회고적, 내성적 분석 연구가 ‘텍스트 분석과 번역’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상의 분류 체계를 따름으로써 전자는 결과물 중심, 후자는 과정 중심의 기술론적 통역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품질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분류 체계로는 원문으로부터 번역문의 이탈 분석, 번역 결과물의 품질 평가 연구, 번역 의뢰자와 교육자, 비평가 및 독자들에게 미치는 통역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하나의 ‘번역 품질 평가’로 분류되지만, 상기의 분류 틀을 통해 각각 결과물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 응용 분야의 비평, 기능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으로 분류되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2 분류작업

1997년부터 2015년까지 *Interpreting, Meta,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에 실린 통역 관련 논문

과 KERIS에서 수집한 수어통역 연구 총 600편 논문에 대한 분류 작업은 선행 연구(이향 2011; 김혜림 2013)의 분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한다.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 기초하여 분류 틀 상 가장 적절한 분야로 분류하며, 이상의 정보로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을 참조한다. 여러 분야에 중복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논문의 중심 논조에 근거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분류한다. 한편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분류 프로세스를 총 3회 진행한다.

3. 분석결과

1) 연도별 게재논문수 변화

학술지별 논문 비중을 살펴보면, 해외 통역학 연구에서는 *Interpreting*이, 국내 통역학 연구에서는 『통역과 번역』이 주도하고 있다.

그림 3 해외 통역학 연구 학술지별 논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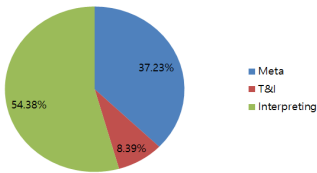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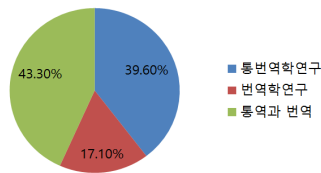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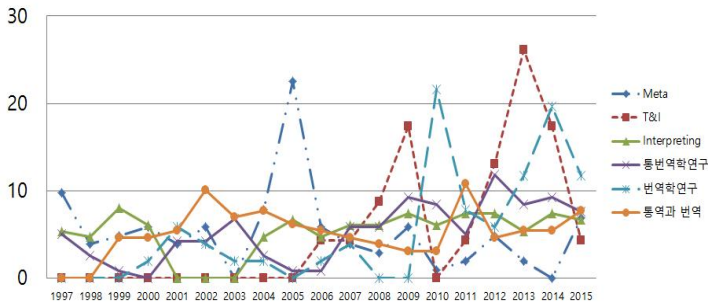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통역학 연구 학술지별 논문 비율



국내 통역학 연구의 상기 결과는 원종화(2015: 44)에서 학술지별 통역 논문 비율이 『통역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번역학연구』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다만 *Meta*와 기타 학술지의 통역 연구 비중 차이가 큰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통역과 번역』과 『통번역학연구』의 비중 차이가 3.7%에 불과하여 사실상 두 학술지가 함께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저널의 연도별 게재논문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5 연도별 게재논문수 추이



국내외 모두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학술지의 경우 등락의 폭이 낮게 분석 전 기간 동안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통역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학술지들의 경우 연도에 따라 게재 수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상기 *Meta*의 통역 관련 논문게재 추이가 정호정(2013: 38)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Meta*의 번역 관련 논문게재 추이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즉, 번역 연구에 있어서도 2003년을 기점으로 2007년까지 급격한 양적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특집호 발행을 통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고를 장려한 결과라고 정호정(2013: 38)은 풀이한다. 결국 이와 같은 동인이 통역학 연구 게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2010년 『번역학연구』의 통역 관련 게재논문 편수의 급격한 증가는 2008년에 정점을 찍은 번역 연구의 성과(정호정 2013: 38)가 통역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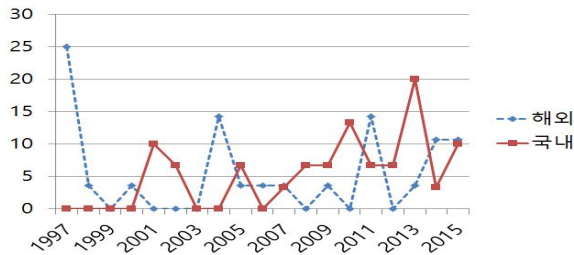
2) 매체 및 언어 유형별 게재논문수 변화

일단 매체라는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보면 국내외 통역학 연구 모두 인간이 수행하는 통역 연구가 절대적이다. 기계 통역에 관한 연구는 전체 600편 논문 가운데 단 3건¹⁴⁾에 불과하다. 언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통역학 연구의 경우 총 274편의 논문 가운데 27편의 논문이 수어 연구이다. 이는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9.85%에 달한다. 반면 국내 통역학 연구의 경우 통번역 전문 학술지에

14) 주로 수어와 관련하여 수어 통역 앱, 수어 통역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실린 논문 총 298편 가운데 수어 관련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통역 연구의 겨우 0.67%를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약 10%에 육박하는 해외 통역학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KERIS에 등록된 수어 통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94년에 이미 수어 통역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논문은 28편이 검색되며, 주로 특수(아동)교육 연구, 장애와 재활 및 복지, 한국수화학회 학술지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외 통역학과 달리 국내 통역학의 경우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가 단절되어 있음을 방증한다(한현희 2015). 수어 통역의 시기별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연도별 수어 통역 관련 게재논문수 추이



해외의 경우 1997년에 이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수어 통역 연구의 붐이 일찍 시작된 반면¹⁵⁾, 국내의 경우 2001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통역 연구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통역 역사가 아닌 사회, 제도적 환경 차이에 기인한다. 해외에서는 1980년을 기점으로 농인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어 통역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1989년 농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의사소통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장애인법(ADA)이 발효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으로 수어 통역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게 되었으며(한현희 2015: 284-85) 이때부터 제도권 내에서 수어 통역 교육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시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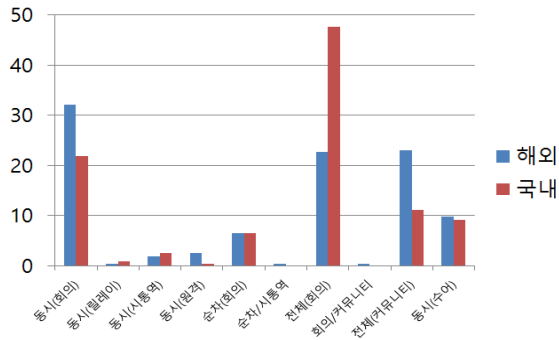
15) 1997년 수어 통역 연구가 활발해지고 10년이 지난 2007년부터 정식으로 영국 St. Jerome 출판사에서 수어 통역 전문 학술지인 *The Sign Language Translator & Interpreter*를 발행하기 시작한다.

변화의 움직임이 1990년대 수어 통역 연구로도 이어지면서 1997년에는 이미 통역 연구에 있어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국내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1990년대 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수어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 급기야 1997년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이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수어 통역사 양성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온 시기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 2002년 국내 최초로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학문으로서 수어통역학이 국내 학계에 발걸음을 내딛어 수어 통역의 연구 성과들이 쌓이게 된 것이다(한현희 2015: 291).

3) 통역 유형 및 장르별 연구 동향

통역 유형과 모드별로 살펴보면 해외와 국내 통역 연구의 비중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7 해외와 국내 통역 연구의 통역 유형 및 모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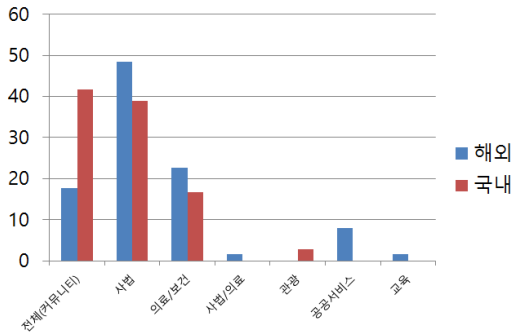


상기 표에서 국내외 모두 동시 통역의 연구 비중이 순차 통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동일한 회의 통역 내에서도 모드의 편차가 상당한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순차와 동시를 구분하지 않는 영역에서 회의와 커뮤니티 통역 연구가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동시와 순차 모드를 구분 짓지 않는 회의 통역의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동시와 순차 통역의 연구 비중까지 합하면 회의 유형의 통역 연구가 전체 연구의 79.75%(260

편)를 차지할 정도로 회의와 커뮤니티 통역을 비롯한 기타 통역 연구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혜림(2013: 105)의 연구에서 회의 통역의 연구 비중이 78.21%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에 김혜림(2013: 109-10)은 회의 통역 외의 커뮤니티 통역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커뮤니티 통역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밖에 해외에서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통역 유형과 모드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조합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통역의 장르(작업 환경) 연구 분류로 이어진다. 전체 커뮤니티 통역의 장르는 사법, 의료, 공공서비스, 비즈니스 통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장르별 해외와 국내 통역 연구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8 해외와 국내 통역 연구의 커뮤니티 통역 장르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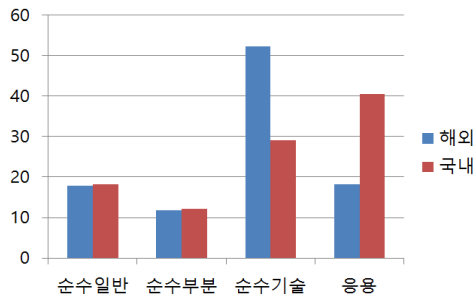
상기 표를 보면 국내외 모두 커뮤니티 통역 내에서 사법 통역 연구가 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사법 > 의료/보건 > 커뮤니티 전체 포괄 > 공공서비스 > 교육 > 사법/의료 장르 순의 연구 동향을 보이지만, 국내의 경우 커뮤니티 전체 포괄 > 사법 > 의료/보건 > 관광 순의 연구 동향을 보인다. 즉, 해외의 경우 특정 통역 장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국내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주류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자칫 특정 장르의 구체적인 통역 현상을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연구가 진행되고, 또 사범/의료와 같이 장르 간의 조합 연구가 이루어지는 점 또한 흥미롭다.

4) 구어 통역 연구의 연구 영역 및 시기별 연구 동향

구어 통역 관련 논문을 연구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9 해외와 국내 구어 통역 연구의 연구 영역별 비중



해외의 경우 전체 연구 가운데 52.23%(239편)가 기술론적 통역학에 해당되며, 이는 통역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술하는 연구가 해외 통역학 연구의 주류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응용 연구와 순수 일반, 순수 부분 영역 순의 연구 동향을 보인다. 한편 국내의 경우 응용 연구가 40.54%(120편)를 차지하며 전체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뒤이어 순수 기술, 순수 일반, 순수 부분의 연구 동향을 보인다. 연구 영역 및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해외 및 국내 구어 통역 연구의 연구 영역별 분류

영역	해외		국내		세부영역	세부주제	해외		국내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순수일반	44	17.81	54	18.24	통역이론	순수통역이론	12	27.27	9	16.67			
						통역정의론	2	4.55	3	5.56			
						슬어 및 용어론	2	4.55	2	3.70			
						통역 유형론	1	2.27	11	20.37			
						통역상황 변수		0.00	1	1.85			
						통역기술론	5	11.36	8	14.81			
						통역사		0.00	8	14.81			
						통역/통역학 연구	22	50.00	12	22.22			
						합계	44	100.00	54	100.00			
					순수부분	29	11.74	36	12.16	특정지역	언어학적 관점 통역	2	6.90
텍스트 분석과 통역	2	6.90	2	5.56									
특정시기	통역학 역사		0.00	1						2.78			
	통역학 역사	20	68.97	8						22.22			
	텍스트 분석과 통역	3	10.34	4						11.11			
특정문계	2	6.90	4	11.11									
합계	29	100.00	36	100.00									
순수기술	129	52.23	86	29.05	결과중심	텍스트 분석과 통역	12	9.30	14	16.28			
						텍스트 분석과 통역	29	76.32	17	54.84			
					과정중심	통역과정	9	23.68	14	45.16			
						통역과정	38	29.46	31	36.05			
					기능중심	통역 직업론	26	32.91	27	65.85			
						통역 윤리	20	25.32	7	17.07			
						통역 과정	24	30.38	5	12.20			
					부분 합계	통역 평가	7	8.86	2	4.88			
						통역사	2	2.53	0	0.00			
					합계	129	100.00	86	100.00				
응용	45	18.22	120	40.54	통역교육	교수법	8	26.67	29	30.21			
						교육과정	2	6.67	21	21.88			
						교육심리	2	6.67	16	16.67			
						교육일반	6	20.00	9	9.38			
						교육평가	12	40.00	19	19.79			
						통역정책		0.00	2	2.08			
					부분 합계	품질평가	7	58.33	15	83.33			
						품질평가방법론	5	41.67	3	16.67			
					보조도구	통역과 테크놀로지	3	100.00	5	83.33			
						슬어 및 용어론	0	0.00	1	16.67			
					합계	45	100.00	120	100.00				
					총계	247	100.00	296	100.00				

순수 일반 이론 영역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통역/통역학 연구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통역학에 관한 총론, 통역 연구 방법론, 통역학 연구 방법론 및 패러다임 분석, 통역학의 새로운 방향 고찰 등이 주류를 차지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통역/통역학 연구 성과와 더불어 통역 유형론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순수 통역 이론과 통역 기술론, 통역사에 관한 연구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해외에 비해 보다 다양한 통역 이론에 관한 논의들이 다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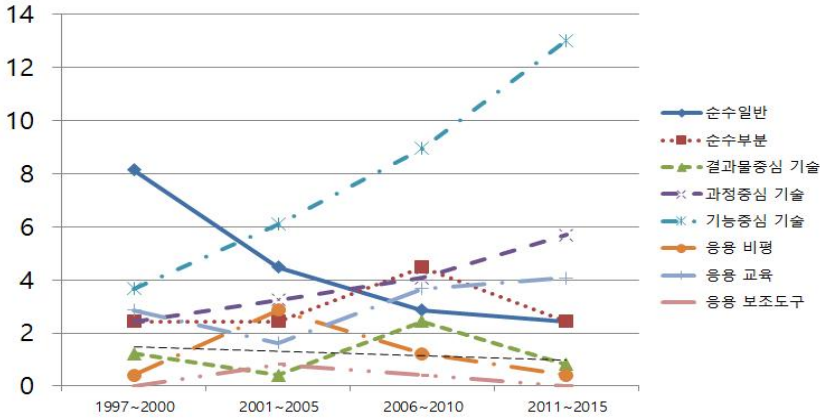
순수부분 이론 영역의 경우 통역의 역사를 고찰하는 특정 시기 이론이 해외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과 같이 특정 언어에 한정지어 통역 방법론을 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특정지역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순수 기술 영역에서는 해외와 국내 모두 기능중심적 > 과정중심적 > 결과물 중심적 기술론적 통역학 순의 동일한 연구 동향을 보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외 모두 통역 그 자체보다는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통역을 기술하는 연구 성과가 쌓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능 중심적 통역 연구라 할지라도 해외의 경우 통역직업론, 통역 과정, 통역 윤리 등 다양한 세부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의 경우 통역 직업론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과물 중심 연구는 국내외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원종화의 연구(2015)에서 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이 텍스트 지향 패러다임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¹⁶⁾

응용 분야의 경우 국내외와 해외 모두 통역 교육 > 비평 > 보조 도구 순으로 동일한 연구 동향을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교육 연구가 80%(96편)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응용 분야 내에서도 특정 연구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통역 교육 연구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통역 교육 평가가 주류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교수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비평의 하위 영역에서도 상이함을 보인다. 해외의 경우 통역 품질 평가와 평가 방법론이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균형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품질 평가가 83.33%(15편)를 차지하면서 마찬가지로 특정 연구 주제의 쏠림 현상을 보인다. 그 밖에 국내외 모두 보조도구 영역의 연구가 매우 부진한 것 또한 특징적이다. 이상의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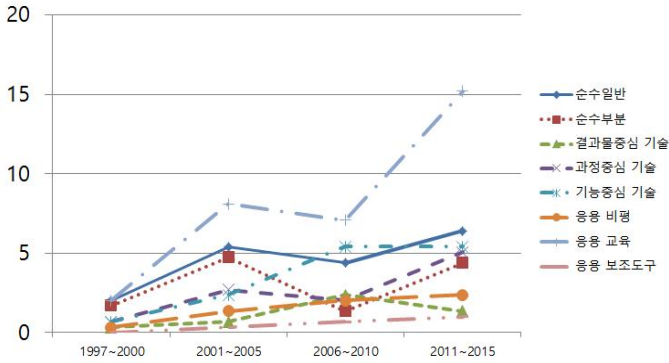
16) 원종화(2015: 46)의 연구에서 과정중심의 연구라 할 수 있는 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이 20.3%, 결과물 중심의 연구에 해당되는 텍스트 지향적 패러다임 12.1%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림 10 해외 구어 통역 연구의 연도별 연구 영역 변화 추이



해외 통역 연구의 시기별 연구 영역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기간 초기에는 순수 일반 이론이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기능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이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2000대 초를 기점으로 통역학 연구가 기능중심의 기술론적 통역학 연구로 거의 돌아서며 오늘날 이 영역은 다른 연구 영역과 큰 격차를 벌리며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과정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은 분석 대상기간 초기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순수 통역 이론 영역을 앞질렀으며, 최근에는 기능 중심 다음으로 통역학 연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능과 과정, 결과물 중심 연구 영역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하였으나 결과물 중심 연구만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세를 띠어 지금은 거의 비중이 없다는 점이다. 즉, 텍스트에서 벗어나 과정, 그리고 사회맥락적 접근으로 이어지는 사회문화학적 번역학의 연구 동향이 통역학 연구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응용 영역에서 텍스트 중심의 단순 비평 연구가 2000년대 초에 다소 이루어지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동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림 11 국내 구어 통역 연구의 연도별 연구 영역 변화 추이



국내 통역학 연구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분석 전 기간 동안 교육 연구가 압도적인 주류를 차지하며 다른 연구와 큰 격차를 보이며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분석 기간 초기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순수 일반 및 순수 부분 이론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국내 통역학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통역사이자 교수자로서 통역 이론을 소개하거나, 연구자의 전공 언어를 중심으로 통역방법론을 처방적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종화(2013)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시기의 이와 같은 동향을 해석학적 패러다임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2000년대 초 과정 중심과 기능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 연구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능 중심 통역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통역학 연구 주류는 교육, 순수일반, 기능 중심과 과정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원종화(2013)는 이와 같은 통역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교육, 직업-제도적 및 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으로 밝힌바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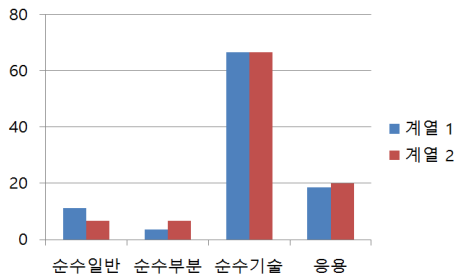
5) 수어 통역 연구의 연구 영역 및 시기별 연구 동향

해외와 국내 수어 통역 연구를 연구 영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놀랍게도 아

17) 순수 이론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원종화(2013)의 연구에서 별도로 이론 관련 패러다임을 분류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여겨진다.

래 그림에서와 같이 순수 기술 > 응용 > 순수 일반 > 순수 부분 순으로 국내외 모두 동일한 연구 동향을 보인다.

그림 12 해외 및 국내 수어 통역 연구의 연구 영역별 비중



상기의 분석 결과를 연구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해외 및 국내 수어 통역 연구의 연구 영역별 분류

영역	해외		국내		세부영역	해외		국내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순수일반	3	11.11	2	6.67	통역이론	순수통역이론	1	33.33			
						통역정의론			2	100.00	
						말어 및 영어론	1	33.33			
						통역 유형론					
						통역상황 변수	1	33.33			
						통역기술론					
						통역사					
통역/통역학 교수법											
통역/통역학 연구											
합계						3	100.00	2	100.00		
순수부분	1	3.70	2	6.67	특정지역	언어학적 관점 통역					
						텍스트 분석과 통역			1	50.00	
						통역 역사					
						통역 시기					
						통역 종류	1	100.00	1	50.00	
합계						1	100.00	1	50.00		
순수기술	18	66.67	20	66.67	결과중심	텍스트 분석과 통역	1	100.00	2	100.00	
						텍스트 분석과 통역	0	0.00	1	5.00	
						텍스트 분석과 통역	3	75.00	1	50.00	
						통역과정	1	25.00	1	50.00	
						합계	4	22.22	2	10.00	
						기능중심	통역 직업론	7	50.00	7	41.18
							통역 윤리	1	7.14	3	17.65
							통역 과정	1	7.14	2	11.76
							통역 평가	5	35.71	5	29.41
							통역역사				
합계	14	77.78	17	85.00							
응용	5	18.52	6	20.00	통역교육	교수법					
						교육과정	1	25.00			
						교육심리	1	25.00	1	100.00	
						교육일반	1	25.00			
						교육평가	1	25.00			
						통역정책					
						합계	4	80.00	1	16.67	
						비평	품질평가				
							품질평가방법론	1	100.00		
							합계	1	20.00	2	33.33
보조도구			3	100.00							
합계	통역과 리크놀로지										
	말어 및 영어론			3	50.00						
총계	27	100.00	30	100.00		5	100.00	6	100.00		

상기 표를 살펴보면 국내외 수어 통역 연구가 동일한 연구 영역별 비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위 영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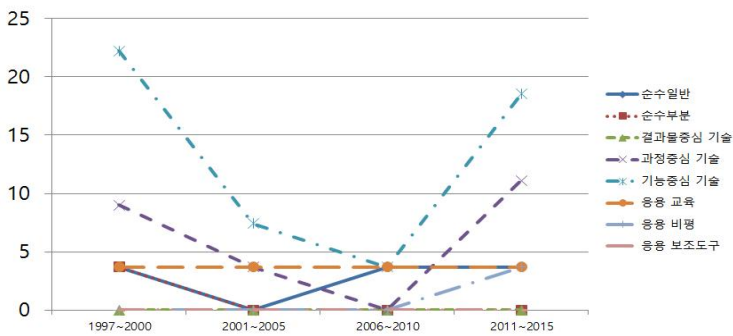
우선 순수 일반 이론 영역에서 해외의 경우 순수통역이론, 통역 유형론, 통역 기술론의 연구가 골고루 분포된 반면, 국내의 경우 통역 정의론의 연구 성과만이 있다.

순수 기술 영역에서는 국내외 모두 기능 중심 > 과정 중심 > 결과물 중심의 연구 동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기능 중심 가운데에서도 통역 직업론 > 통역 평가와 같이 연구 주제 또한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는 수어 통역이 단순히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통합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권리 보장을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수어 통역 서비스의 실태 보고나 수어 통역 서비스에 대한 농인들의 수용도 연구는 물론 농인들의 삶이 수어 통역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수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응용 영역에서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해외의 경우 통역 교육 > 비평 순의 연구 동향을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보조도구 > 비평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해외의 경우 수어 통역의 교육 과정, 교육심리, 교육 일반, 교육 평가와 같은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는 수어 통역 교육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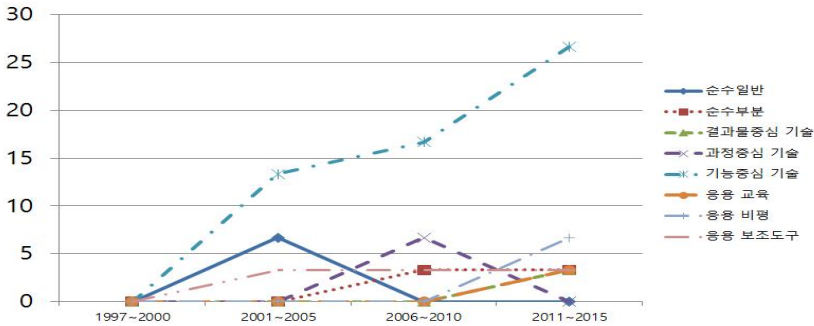
연도별 수어 통역 연구 영역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해외 수어 통역 연구의 연도별 연구 영역 변화 추이



해외 수어 통역 연구에서는 기능 중심과 과정 중심의 기술론적 통역학이 동일한 연구 패턴을 보이며 등락세가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교육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일정하고 꾸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수어 통역의 사회적 기능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수어 통역을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어 통역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4 국내 수어 통역 연구의 연도별 연구 영역 변화 추이



한편 국내 수어 통역 연구의 시기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능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이 분석대상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른 영역과 점점 더 큰 격차를 벌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이와 달리 순수 일반 이론과 과정 중심 기술론적 통역학은 어느 정도 시도가 있었으나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순수 일반 이론의 경우 2000년 대 이후 제도권 내의 수어 통역 교육이라는 회기적인 변화가 일면서 수어 통역 연구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구어 통역 이론에 기대어 수어 통역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연구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 수가 많지 않고 수어통역학의 학문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이론 영역의 연구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¹⁸⁾ 교육 연구 또한

18) 하나의 학문이 독립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학술지 발간이나 학회 성립이 불가피하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수어 통역 협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한국수화학회의 분과 영역으로 수어 통역이 다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 전공의 박사는 아직까지 국내 1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재활학 분야의 박사들

상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2000년대 초 국내 수어 통역 교육 기관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연구자가 배출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한편 보조도구 영역의 연구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야는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기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도구를 활용하여 농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통역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그 의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총 600편의 통역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와 향후 국내 통역학계가 지향해야할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통역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통역 참여자 간의 관계와 통역물의 수용 환경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국내의 모두 기술론적 통역학 연구가 오늘날 통역 연구의 대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통역 직업론의 연구가 65%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국제회의 통역 수요나 통역 시장 조사, 또는 법정, 의료, 군사 등 특정 장르의 통역 현황(실태) 파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통역 직업론과 통역 윤리의 연구¹⁹⁾는 물론 아이덴티티, 가시성, 권력 담론 차원의 통역 윤리와 통역 과정 및 평가 등 비단 통역 주체뿐만 아니라 통역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²⁰⁾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이 수어 통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대표적으로 “Conference interpreting: Surveying the profession”(T&I Studies 2009), “A Crime in Another Language? An Analysis of the Interpreter's Role in the Yousry Case”(T&I studies 2007), “Betrayal - Vice or Virtue? An Ethical Perspective on Accurac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Meta 2007),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community interpreting: Norms, ethics and roles among military court interpreters: The unique case of the Yehuda Court”(Interpreting 2008)와 같은 연구를 꼽을 수 있다.
20) 그 예로 “The impact of individualist versus collective group identity”(Interpreting 2007), “In and Off the Show: Co-constructing ‘invisibility’ in an

는 언어적 측면에서 벗어나 실제 통역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통역사의 역할, 통역물의 사회적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역 참여자 혹은 기관 간의 관계 및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 방향의 상이함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 모두 기술론적 통역학 > 응용 > 순수 일반 > 순수 부분의 순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다라도 기능중심 > 과정 중심 > 교육 순으로 동일한 연구 패턴을 보이며 동반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구어 통역 연구에서는 응용 > 기술론적 > 순수 일반 > 순수 부분의 순을 보이는 반면, 수어 통역 연구는 기술론적 > 응용 > 순수 일반 > 순수 부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연구 동향 면에서도 구어 통역의 경우 교육 > 순수 일반 > 기능 중심 > 과정 중심 순으로 나타나지만, 수어 통역의 경우 기능 중심 > 비평 > 순수 부분 및 교육 > 과정 중심의 연구 동향을 나타내며 구어와 수어의 연구 패턴이 현저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교육 분야의 전 영역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한 구어와 달리 수어 통역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구어와 수어 통역 이론 공유와 더불어 교수법, 교과 과정, 교육 평가 등의 교육 실제 파악 및 연구 성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해를 기반으로 향후 공동 연구를 통해 구어와 수어 통역 결과물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고찰, 통역의 인지정보 처리 과정 비교, 구어와 수어 통역의 사회 기능적 측면 비교, 더 나아가 인증제도 분야 등의 평가 영역까지 연구 성과를 도출한다면, 이는 수어 통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어 통역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수어자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 2월 3일 제정되었

Interpreter-Mediated Talk Show Interview”(Meta 2008), “Orality and authenticity in an interpreter-mediated defendant’s examination: A case study from the Belgian Assize Court”(Interpreting 2014), “Power in face-to-face interpreting events”(T&I studies 2012), “The Interpreter, the Monitor and the Language Arbiter”(Meta 2009), “Scapegoating the interpreter for listener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 experimental study”(Interpreting 2015),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court interpreters”(Interpreting 2009) 등을 꼽을 수 있다.

고, 8월 4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센터에 고시된 이 법을 살펴보면 농인들이 의사소통과 학습에서 발생하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 겪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 통역을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또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방송, 교육 분야 등 전문 통번역시장에서 구어와 수어 통역사의 협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어와 수어 통역의 교육을 비롯한 전 영역 연구에서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연구 영역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 보조도구 영역의 연구 공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1세기 ICTs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통번역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버버(Berber 2008: 3; Winteringham 2010: 89 재인용)는 1980년대 정보화시대를 기점으로 번역이 모든 기술적 발명의 수혜를 입었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번역에서의 ICT 적용은 매우 활발해 졌으나, 이와 대비되게 통역에서는 그 적용이 미흡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연구 성과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역에서의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CAI), Computer-Assisted Interpreter Training(CAIT)의 유용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진전, Vortex Phraselator와 같은 문장 변환기, Speech recognition software programmes, Voice recognition software programmes, termbase와 같은 전문용어틀 등의 기계 통역(Machine Interpreting) 분야, 그리고 teleconferencing technologies의 혁명이라 불리는 원격통역(Remote Interpreting)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보조도구 영역에서의 연구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국내 수어 통역의 경우 해외와 달리 보조 도구 영역의 연구 성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해외의 연구 공백을 국내의 연구 성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역 품질 평가와 평가 방법론이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균형있는 비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통역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 공백들을 연구자들이 함께 채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통역 연구에 있어 언어 양식, 통역 모드, 장르 상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국내 통역학은 수어보다는 구어 통역만을, 커뮤니티보다는

회의 통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듯 편중되게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와 순차, 시통역 등의 통역 또한 별개의 연구 대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반면 해외의 경우 통역학라는 큰 틀 내에서 구어와 수어 통역의 경계, 회의와 커뮤니티 통역 유형의 경계, 동시와 순차 통역, 시통역 등의 경계를 허무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의 통역 전문 학술지에 수어 통역의 연구가 1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통역 모드를 구분 짓지 않는 경우 회의와 커뮤니티 통역의 비중 또한 대등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통역 모드는 물론 통번역의 경계를 허무는 연구²¹⁾, 서로 다른 작업 환경의 경계를 비교하는 연구²²⁾ 등이 게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통역학이라는 큰 그릇에 따로 따로 붙어있는 조각들의 틈을 메워주는 작업으로서 그릇 자체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안목을 키워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해외 통역학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통역학 연구의 특징 및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통역학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통역학 분류 틀을 마련하고 1997년부터 2015년 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총 60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연구 영역과 세부 주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와 제

21) 그 예로 “*Applying language skills to interpretation: Student perspectives from signed and spoken language programs*”(Interpreting 2004), “*Cognitive and motivational contributors to aptitude: A study of spoken and signed language interpreting students*”(Interpreting 2011), “*Bilingual working memory capacity of professional Auslan/English interpreter*”(Interpreting 2013)와 같이 구어와 수어 조합의 연구, “*Shared Attention during Sight Translation, Sight Interpret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Meta 2004)과 같이 시통역과 동시 통역 조합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2) 그 예로 “*Interpreter-mediated interaction in healthcare and legal settings: Talk organization, context and the achieve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Interpreting 2011)를 들 수 있다.

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의 경우 *Interpreting*이, 국내의 경우 『통역과 번역』과 『통번역학연구』가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연도별 게재 논문 추이를 살펴보면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는 학술지의 경우 분석 전 기간 동안 통역 관련 논문이 꾸준히 실리며 일정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연도에 따라 게재논문 수에 큰 편차를 보였다. 2) 언어별로 살펴보면, 해외 학술지에 실린 수어 통역 논문이 9.85%에 달하는 반면, 국내 통역 학술지에 실린 수어 통역 관련 논문은 0.67%에 불과하다. 이는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가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 순차와 동시 통역 모드를 구분 짓지 않는 연구에서 해외의 경우 회의 통역과 커뮤니티 통역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 국내의 경우 압도적으로 회의 통역 연구가 많아 다양한 유형의 통역 연구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4) 구어 통역의 연구 영역과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기술론적 > 응용 > 순수 일반 > 부분 순으로, 국내는 응용 > 순수 기술 > 순수 일반 > 순수 부분 순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어 통역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두 순수 기술 > 응용 > 순수 일반 > 순수 부분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어와 수어 모두 하위 영역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1) 기능 중심의 기술론적 통역 연구에서 통역 참여자 간의 관계와 통역물의 수용 환경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구어와 수어 통역 연구 방향의 상이함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연구 영역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4) 통역 연구에 있어 언어 양식, 통역 모드, 작업 환경상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번역학 연구 성과 분석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역학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수어 통역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국내 통역학 자체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잉그램(Ingram 1978)은 수어 통역을 포함하지 않은 통역에 관한 설명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고 하여, 본 연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통역학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 그리기를 위한 작은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국내의 경우 전문학술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의 연구 성과를 모두 다룬 만큼 통역학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비교 대상

인 해외의 경우 전통적 연구 패러다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분석 시기의 출발점인 1997년은 이미 다양한 나라권의 통역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투고하기 시작한 때이므로(Lim 2000: 200), 이전 연구 패러다임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가 국내의 전체 통역학 연구 동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한다. 첫째, 나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코퍼스 선정 원칙을 세워 분석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제외된 다른 학술지의 논문들에서도 본고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연구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기 힘들다. 둘째, 특정 연구가 단 하나의 연구 영역, 연구 주제만을 다룬다고 보기 힘들다. 통역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인 통역학은 통역 그 자체가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 등의 총체적 집합인 만큼 연구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다(정혜연 2008: 1-2). 즉, 하나의 연구 안에는 다양한 연구 목적과 주제 영역, 이론과 연구방법론이 복잡하게 혼재한다. 어느 것대, 어느 분류 틀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본고에서 제시한 분류 틀이 엄밀하게 영역 구분을 하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분류 작업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다 할지라도 그 역시 연구자의 단독 분류이므로 자의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해외 논문의 경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기 힘들었다는 점 또한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국내 통역학을 해외 통역학과 나란히 세워 비교해봄으로써 국내 통역학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시도인 만큼 향후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²³⁾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23)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을 모두 참고문헌에 언급해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 언급된 논문만을 여기에 수록하기로 한다.

- 김훈밀(역) (2014) 『통번역학 연구 문제점과 향후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원종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연구 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1): 35-64.
- 이연향 외(역) (2009) 『통번역학 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341-362.
- 이향 (2013) 『번역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방법론적 전환의 필요성-』: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 71-92, 한국문화사.
- 정연일, 남원준(역) (2006) 『번역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혜연 (2008) 『통역학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정호정 (2013) 『번역학 연구의 발달과 당면 과제: 국내외학술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 3-69, 한국문화사.
- 최희섭 (2007)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345.
- Angelelli & Claudia & Osman & Ghada (2007) “‘A Crime in Another Language?’ An Analysis of the Interpreter’s Role in the Yousry Cas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1): 47-82.
- Cecilia Wadensjö (2008) ‘In and Off the Show: Co-constructing ‘invisibility’ in an Interpreter-Mediated Talk Show Interview’, *Meta* 53(1): 184 - 203.
- Cheung, Andrew K. F. (2015) ‘Scapegoating the interpreter for listener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 experimental study’, *Interpreting* 17(1): 46-63.
- Gallez, Emmanuelle & Maryns, Katrijn (2014) ‘Orality and authenticity in an interpreter-mediated defendant’s examination: A case study from the Belgian Assize Court’, *Interpreting* 16(1): 49-80.
- Ingram, Robert (1978)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general theories of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in David Gerver & H.Wallace Sinaico(ed.)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ew

- York: Pleum Press, 109-118.
- Jeremy, Munda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J. Pan & H. Wang & J. X, Yan (2015) 'Advances in Research o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A Review of Research articles in META', *Meta* 60(2): 347.
- J. X. Yan & J. Pan & H. Wang (2015) 'Studies o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a data-driven review of journal articles 2000-12',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9(3): 263-286.
- Kayoko Takeda (2009) 'The Interpreter, the Monitor and the Language Arbiter', *Meta* 54(2): 191 - 200.
- Kilian G. Seeber & Christian Zelger (2007) 'Betrayal - Vice or Virtue? An Ethical Perspective on Accurac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Meta* 52(2): 290 - 298.
- Lee, Jieun. (2009)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court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 Lim, Hyang Ok (2009) 'A Meta-Analysis of Interpretation Research in Meta',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1(2): 183-217.
- Lipkin, Shira L. (2008) 'Norms, ethics and roles among military court interpreters: The unique case of the Yehuda Court', *Interpreting* 10(1): 84-98.
- Luc Van Doorslaer (2005) 'The Indicative Power of A Key Word System.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ey Words in the Translation Studies', *Meta* 50(4): 1-4.
- Mason, Ian & Ren, Wen (2012) 'Power in face-to-face interpreting event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234-253.
- Nadieh Rafice & Azadeh Nemati (2014) 'Translation Studies Orientations: A Case Study on Asian and European Journals', *Linguistics and Literature Studies* 2(6): 178-190.

- Nikolay Garbovskiy & Olga Kostikova (2012) 'Science of Translation Today: Change of Scientific Paradigm', *Meta* 57(1): 48 - 66.
- Pöchhacker, Franz (2009) 'Conference interpreting; Surveying the professi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172-186.
- Rudvin, Mette (2007)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community interpreting: The impact of individualist versus collective group identity', *Interpreting* 9(1): 47-69.
- Salevsky, H. (1993) 'The Distinctive Nature of Interpreting Studies', *Target* 5(2): 149-167.
- Tripepi Winteringham, Sarah (2010) 'The usefulness of ICTs in interpreting practice',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5: 87-99.
- Y. S. Lan & D. H. Dong & A. Chiu (2009) 'Research Trend and Method in Translation Studies: A Comparison between Taiwanese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Compilation and Translation Review* 2(2): 177-191.
- 許鈞, 穆雷 (2009) *中國翻譯研究(1949-2009)*,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분석 대상 학술지]

『통역과 번역』 vol.1(창간호) ~ vol.17(3).

『통번역학연구』 논문집 1 ~ 제19권 4호.

『번역학연구』 제1권 1호 ~ 제16권 제 5호.

Meta vol 42(3) ~ vol.60(2).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vol 1(1) ~ vol.10(2).

Interpreting vol 2(1) ~ vol.17(2).

[Abstract]

**Trend and Challenges in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in Korea:
Basing on Comparison with Trend in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Overseas**

Han, Hyun-Hee
(Kyung 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current foothold in the field of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and present the future path through the use of comparison between the patterns in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in Korea and overseas. To this end, this study sets forth classification of research in interpreting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both at home and abroad. The time range of the corpus of analysis is from 1997 to 2015. The corpus for analysis is 600 studies including: 274 studies on interpretation published in three overseas academic journals, namely *Interpreting*, *Meta* an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98 studies on interpretation published in three local academic journals, namely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and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and 28 studies o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registered on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Utilizing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trend in research is quantit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year, language, type and genre of interpretation, and scope and theme of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ournals that are leading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are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and *Interpreting* overseas. Time analysis shows that interpretation related papers are consistently published in the leading journals, whereas great discrepancies exist in the number of interpretation 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non-leading journals depending on the publishing year; 2) Papers o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ccount for 9.85% in overseas journals, whereas the number stands at a mere 0.67% in Korea. This showcases the disconnection between research o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oral language interpretation; 3) In researches that do not distinguish between simultaneous and consecutive modes of interpretation,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community interpretation account for similar proportions in researches abroad, whereas conference interpretation takes up a predominant share in Korea; 4) The analysis on the scope and sub-themes of studies on oral language interpretation shows that the most researched area overseas is descriptive interpreting studies, followed by application, general theory and partial theory, in this set order. In Korea, the most focused is application, followed by general technology, general theory and partial theory, in this order. The order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research is consistent both at home and abroad, the most researched being general technology, followed by application, general theory and partial theory, in this order. However, the sub-themes of different scopes of studies varies both in the case of oral and sign language.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analysis and the future path that the Korean academia of interpretation should take are as follows. First, in function-oriented DIS,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lationship among interpretation participants and the atmosphere of acceptance of interpretation.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lose the gap between diverging directions of research on oral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hird, effort should be made to fill the void that exist in the scope of research. Fourth, all boundaries in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including language format, interpretation mode and genre of interpretation should be dismantled.

▶ Key Words: Interpreting Studies, Classification of Researches in Interpreting Studies, Research Trend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한현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hhhupa@naver.com

관심분야: 통/번역학, 러시아어 통번역/교육, 문학번역, 수어통역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